“배구는 도전의 연속… 페퍼스, 첫 승 준비 됐어요”

엘리자벳 이네 바르가

페퍼스 ‘주포’ 엘리자벳 광주일보 단독 인터뷰

헝가리 출신…헝가리 리그서 4년 간 활약
광주 AI 페퍼스 공격의 39.73% 도맡아
내일 도로공사와 원정 경기에서 첫 승 각오
따뜻한 환영과 응원 보내 준 팬들에 감사

“얼마든지 준비됐어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요.”

AI페퍼스의 라이트 엘리자벳 이네 바르가(22)에게 V리그는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다.

엘리자벳은 KGC인삼공사, GS칼텍스 등을 상대한 지난 두 경기에서 ‘주포’ 역할을 훌륭히 해내며 이목을 끌어모았다.

총합 41득점, 공격 성공률은 41.38%를 기록하며 활약했다. 지난 19일 개막전에서는 22득점을 올리며 양팀을 통틀어 최다 득점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엘리자벳은 김형실 AI페퍼스 감독이 여자부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 및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영입했던 선수다. 평균 신장 178cm로 상대적으로 피지컬이 부족한 AI페퍼스에게 192cm 큰 키와 높은 타점을 갖춘 엘리자벳은 든든한 자원이다.

빠르게 한국 적응을 마친 엘리자벳은 “시작이 좋다”고 V리그 입성 소감을 밝혔다.

엘리자벳은 39.73%의 높은 공격 점유율에도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아포짓 스파이커(라이트)로서 많은 볼을 처리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꾸준히 내가 가진 모든 배구 스킬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팬들에게 내가 가진 전부를 보여 주고 싶은 마음이다”고 웃었다.

“두 경기를 뛰고 보니, 우리 팀과 함께 더 많은 걸 하고, 좋은 성적을 내고 싶어요.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를 받고 있죠. 이번 시즌 준비 많이 했던 만큼, 다가올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AI페퍼스의 엘리자벳 바르가가 지난 1일 광주 페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목포여상과 연습경기에서 스파이크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헝가리 출신으로 지난 2017년부터 4년 동안 헝가리 엑스트라리가에서 활동했던 엘리자벳. 사실 주 공격수 역할은 낯설지 않다. 헝가리 리그 강팀인 파툼 니레지하저에서도 주 공격수인 라이트(아포짓 스파이커) 자리를 꿰찼었던 그다.

하지만 V리그에 입성한 뒤로는 ‘수비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다. 그는 올 시즌 목표로 단연 ‘수비 능력 강화’를 꼽았다.

“헝가리 리그에서 뛸 때와는 크고 작은 차이들이 많아요. 가장 큰 차이는, 헝가리에서는 코치진에게서 ‘더 공격적으로 하라’는 압박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에 와서 보니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를 잘 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더라고요.”

엘리자벳에게 29일 도로공사와 경기는 ‘기회의 무대’다. 지난 두 차례 경기에서 나란히 2전 2패를 기록한 AI페퍼스와 도로공사는 이날 ‘첫 1승’을 두고 승부를 펼친다. 엘리자벳은 이날 AI페퍼스 첫 승을 이끌 주역으로서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는 “진절하게 환영해 주고,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보내 주신 모든 팬 분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며 “29일 팬 여러분께 훌륭한 경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 뿐이다. 매 경기마다 더욱 좋아지는 내 모습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한편 AI페퍼스는 오는 29일 오후 7시 김천실내체육관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첫 원정 경기를 치른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국 여자축구, 세계 랭킹 1위 미국에 0-6 완패

친선경기 1무 1패 마무리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FIFA) 세계 랭킹 1위 미국과 친선 경기 2차전에서 0-6으로 졌다.

FIFA 랭킹 18위 한국은 27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의 알리안츠 필드에서 열린 미국과 친선 경기에서 6골 차 영패를 당했다.

22일 미국 캔자스주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1차전에서 0-0 무승부로 선전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 미국을 상대로 한 원정 2연전을 1무 1패로 마무리했다. 1무 1패의 성적 자체는 객관적인 전력상 나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지만 두 경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고 2차전에서 6골 차로 크게 진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미국과 역대 전적은 15전 4무 11패가 됐다.

우리나라는 이날 이금민(브라이턴)을 최전방 공격수로 세우고 지소연(첼시), 최유리(현대제철), 조소현(토트넘), 장슬기(현대제철), 추효주(수원도시공사)를 미드필더로 배치했다.

수비에는 이영주, 홍혜지, 임선주, 김혜리 등 현대제철 소속 선수들이 늘어섰고, 김정미(현대제철)가 골문을 지켰다.

이에 맞선 미국은 이날 은퇴 경기를 치른 칼리 로이드를 필두로 맬러리 푸, 소피아 스미스로 공격 조합을 이뤘고 린지 호런, 캐터리나 머캐리오, 앤디 설리번이 미드필더에 포진했다.

수비에 에밀리 폭스, 티어나 데이비드슨, 애비 달켐퍼, 에밀리 소닛이 선발 출전했고, 골키퍼는 제인 캠벨이 나왔다.

전반 내내 우리나라는 한 번의 슈팅도 하지 못했고, 미국은 유효 슈팅 6개를 포함해 14차례의 슛으로 한국 골문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경기가 펼쳐졌다. 미국의 선제 결승골은 전반 9분에 나왔다.

스미스가 오른쪽 측면을 파고들다가 골 지역 정면으로 연결해준 땅볼 패스를 호런이 왼발로 슈팅한 것이 우리 수비수 몸 맞고 공중으로 뜨며 골문 안으로 향했다.

이후로도 미국은 전반 27분 로이드의 왼발 슛이 김정미 골키퍼의 슈퍼세이브에 걸리고, 곧바로 1분 만에 다시 스미스의 오른발 슛이 골키퍼 선방에 막히는 등 경기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다.

32분 머캐리오, 33분 설리번의 슈팅이 골키퍼에 막히거나, 골문을 살짝 넘기는 등 계속 추가 득점을 시도한 미국은 결국 전반 45분에 2-0을 만들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의 알리안츠 필드에서 열린 미국 대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의 친선 경기 2차전에서 한국의 지소연(앞·첼시)이 상대 에밀리 소닛(워싱턴)과 볼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코너킥 상황에서 설리번의 헤딩이 조소현을 맞고 자책골이 되면서 전반은 미국의 2-0 리드로 끝났다.

한국은 후반 시작 4분 만에 지소연이 정면에서 때린 오른발 중거리 슛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한 장면이 이날 득점에 가장 근접한 때였다.

미국은 후반 21분에 로이드를 빼고 알렉스 모건을 교체 투입했다. 이때 경기장을 찾은 미국 팬들이 로이드에게 기립 박수를 보내고, A매치 316번째 경기를 끝으로 은퇴하는 로이드도 축구화를 벗고 동료 선수와 차례로 포옹하는 등의 세리머니를 하느라 사실상 경기가 잠시 중단됐다.

이후 곧바로 미국은 후반 24분에 세 번째 골을 만들었다. 메건 러피노가 오른발로 앞으로 찔러준 공을 쇄도하던 모건이 그대로 왼발로 차넣어 3-0이 됐고, 후반 40분에는 러피노가 소넷의 크로스를 오른발 발리슛으로 연결하며 4-0을 만들었다.

미국은 후반 44분 로즈 러벨, 추가 시간에는 린 윌리엄스가 한 골씩 더 넣고 6골 차 대승을 자축했다.

슈팅 수 29-2, 유효 슈팅은 13-1 등 미국이 일방적인 우위를 보인 경기였다. 콜린 벨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은 귀국 후 2022년 1월 인도에서 개막하는 아시안컵을 대비한다. /연합뉴스

첼시·아스널·선덜랜드 잉글랜드 리그컵 8강 진출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
오늘 번리 상대 8강 진출 도전

첼시와 아스널, 선덜랜드가 잉글랜드 카라바오컵(리그컵) 8강에 진출했다.

첼시는 27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2021-2022 카라바오컵 16강전에서 사우샘프턴을 승부차기 끝에 4-3으로 따돌리고 8강에 올랐다.

전반 44분 카이 하베르츠의 헤딩 득점으로 1-0을 만든 첼시는 후반 시작 2분 만에 상대 체 애덤스에게 동점 골을 내주고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승부차기에서 사우샘프턴은 네 번째 키커로 나선 윌리엄 스몰본의 슛이 높이 뜨면서 궁지에 몰렸고, 첼시는 마지막 키커 리스 제임스가 침착하게 팀의 8강행을 확정하는 슛을 성공했다.

아스널은 리즈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후반에 캘럼 체임버스와 에디 은케티아가 한 골씩 터뜨리며 2-0 승리를 거두고 8강에 합류했다.

첼시는 2015년 이후 6년 만에 리그컵 정상 복귀를 노리고, 아스널은 1993년이 최근 우승 사례다.

선덜랜드는 퀸스파크 레인저스와 득점 없이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3-1로 이겨 준준결승에 진출했다.

2016-2017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속했던 선덜랜드는 2017-2018시즌 2부 리그인 챔피언십으로 강등됐고, 2018-2019시즌에는 3부 리그에 해당하는 리그원으로 떨어졌다.

이날 챔피언십 소속의 퀸스파크 레인저스를 따돌린 선덜랜드는 3부 리그 팀으로는 유일하게 올해 카라바오컵 8강까지 진출했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과 대회 5연패를 노리는 맨체스터시티 등은 28일 16강전을 치른다.

토트넘은 번리, 맨체스터시티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8강 진출에 도전한다.

이 대회 준준결승은 12월에 열리며 8강 대진은 30일에 추첨을 통해 정해진다. /연합뉴스